

Issue Paper 2012-02

서비스업 중견기업과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

박 양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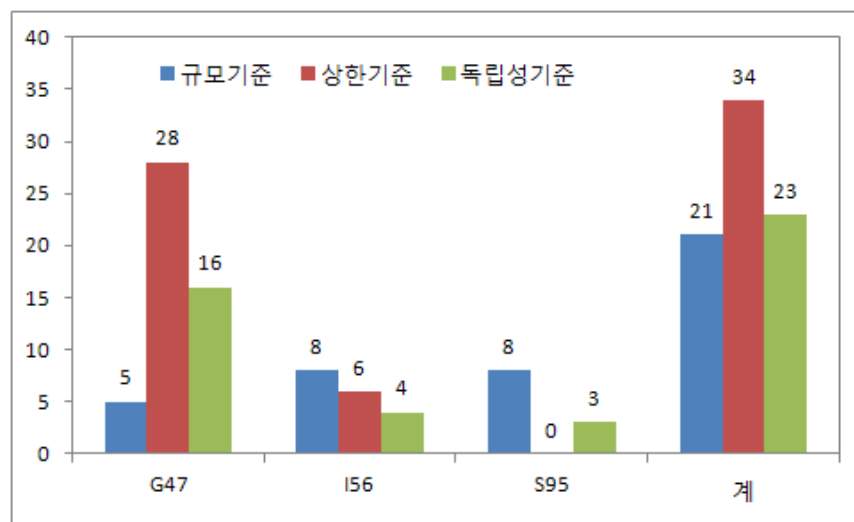


사단
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REA MEDIUM INDUSTRIES ASSOCIATION

[요 약]

2012년 현재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수는 7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매업이 4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업이 18개사,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11개사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규모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은 21개사, 상한기준은 34개사, 독립성 기준은 23개사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G47, I56, S95) 중견기업 현황(2012)



* G47은 소매업, I56은 음식업, S95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의 범위는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부터 대기업 수준에 이르는 기업까지 광범위하다.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의 2011년 평균 매출액은 1,732억원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1천억원 이상이 39개사이며,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이 14개사, 300억에서 500억 미만이 12개사, 100억에서 300억 미만이 10개사, 100억 미만이 3개사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에 이어 금년에는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적합업종 대상 우선 검토 대상 118개 품목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매업 70개 품목, 음식업 17개 품목,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1개 품목이다.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18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

로 지정될 경우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7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업 중에는 업종전문화를 통한 성장한 중견기업들도 있다. 여기에 조만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도 9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기업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품목 선정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기준을 적용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도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에서 상당수의 기업은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이다. 2011년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 때 샘플식품 등은 업종전문화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었다.

셋째, 규모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중견기업 범위기준은 자산,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매출규모 등이 더 큰 기업이 존재한다. 서비스 분야 적합업종도 매출액 500억 미만 중견기업은 25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0억 이상 중소기업은 27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는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중견기업은 규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조차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수

	100억 미만	100~ 300억 미만	300~ 500억 미만	500억~1천 억 미만	1천억 이상
중견기업	3	10	12	14	39
중소기업	73	56	48	17	10

넷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배치된다. 정부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등 각종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위 축시킨다. 그 이유는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확장자제, 사업축 소, 진입자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고, 국내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증가시킨 다. 나아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건 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중견기업의 피해를 막고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 중견기업과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¹⁾

1. 문제제기

-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 적합업종 제도 논의 초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됨
- ☐ 2011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82개 품목을 선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사업철수,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의 권고를 했음
- ☐ 2011년 중소기업계는 제조업 234개 품목을 적합업종 품목으로 신청접수했으며, 그 중 82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 ☐ 이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철수,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의 권고를 했음
- ☐ 2012년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검토 대상은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총 118개 품목에 이르고 있음
- ☐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견기업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이 글에서는 서비스업 중견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업 분야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1) 이 보고서는 조사기획팀 박양균 팀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275-2991, Fax) 02-3275-2989 E-mail) ykpark@komia.or.kr

2. 서비스업 중견기업 현황

1) 서비스업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견기업의 판정기준은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규모기준은 상시 근로자수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다음 해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며,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씩 상이함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을 초과해야 함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을 초과해야 함
 -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을 초과해야 함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을 초과해야 함
 - 상한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자산 5,000억원 이상, 자기 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독립성 기준은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관계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함

-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집단을 말하며, 이 때 지배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이어야 함

[표 1] 서비스업 중견기업의 범위

기 준		해당업종	적용시기
규모 기준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원 초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준 충족 다음해부터 3년 경과 후
	상시근로자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 200억원 초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 50억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한 기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해당즉시
	자산 5,000억원 이상		해당즉시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012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		2012
독립성 기준	자산 5,000억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기업		해당즉시
	관계기업제도		2011

주1)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제외

2) 서비스업 현황

- 2010년 말 기준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2,921천개, 종사자 수는 12,872천명, 총매출액은 약 2,397조원에 이르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이 877천개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634천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6천개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종사자 수는 약 12,872천명이었으며, 업종별 종사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 2,61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1,766천명, 교육 서비스업 1,421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총 매출액은 약 2,397조원이었으며, 이중 도소매업이 약 827조원, 금융 및 보험업이 약 699조원, 운수업이 약 147조원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중 중견기업 수는 1,118개로 전체 서비스업의 0.4%, 종사자 수는 376,679명으로 전체의 29.3%, 매출액은 약 100조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중 중견기업 수는 1,118개사로 전체 서비스업의 약 0.4% 수준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51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및 임대업 192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1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2개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중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376,679명으로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의 29.3%를 차지하였으며, 업종별 종사자 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08,942명, 도매 및 소매업 92,102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340명, 숙박 및 음식점업 35,542명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중 중견기업 총 매출액은 약 100조원으로 서비스업 전체 매출액의 4.2%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도소매업이 약 47조원, 운수업이 약 14조원,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약 14조원 순으로 나타남

[표 2] 서비스업 현황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십억원)	
	전체 (천개)	중견 기업(개)	전체 (천명)	중견 기업(명)	전체	중견 기업
G 도매 및 소매업	876.6	251	2,618.4	92,102	826,930	47,106
H 운수업	347.2	113	993.0	29,937	146,931	14,148
I 숙박 및 음식점업	634.5	53	1,766.3	35,542	76,795	4,407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4	182	468.5	45,340	114,052	14,182
K 금융 및 보험업	39.4	0	706.9	0	699,401	0
L 부동산 및 임대업	126.1	192	440.7	7,293	55,902	4,604
M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	70.6	142	750.3	39,883	116,611	6,655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35.9	91	793.3	108,942	34,968	4,496
O 공공행정·국방/사회 보장 행정	11.9	0	663.6	0	97,315	0
P 교육서비스업	166.0	32	1421.2	9,791	83,293	2,05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	107.0	1	1,084.2	51	70,044	5
R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2.9	37	322.9	5,040	34,444	1,560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6.3	24	842.4	2,758	40,339	436
총 계	2,920.8	1,118	12,871.7	376,679	2,397,025	99,655

주1) 출처: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2012. 5. 23
 주2) 서비스업종 중견기업 현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자체 조사 결과임(2010년 사업연도를
 결산한 기준이며, 관계기업 포함)

3)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 현황

□ 2012년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 수는 78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
 업은 78개사에 이르고 있음

○ 세부적으로는 소매업이 49개사, 음식업이 18개사, 수리 및 기타 개인서
 비스업이 11개사로 나타남

[표 3] 서비스 분야(G47, I56, S95) 중견기업 현황

	G47	I56	S95	계
중견기업	49	18	11	78
우량중소기업	2	5	2	9

- 주1) G47은 소매업, I56은 음식업, S95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주2) 서비스업종 중견기업 현황은 사업연도 2011년 결산기준이며, 재무정보가 없는 기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주3) 우량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 받는 기업으로 중견기업 진입예정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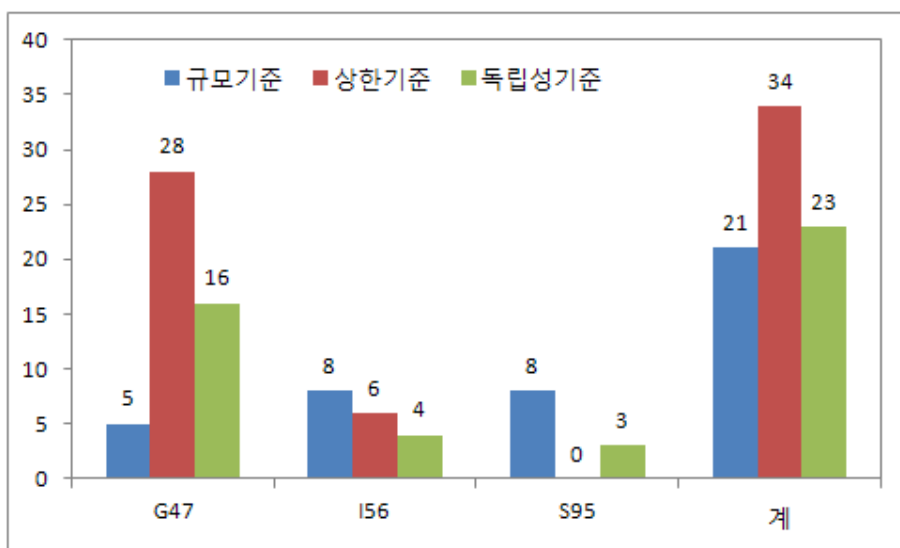
□ 중견기업 판정기준에 따라 분류 할 때, 규모기준에 따른 중견기업은 21개사이며, 상한기준은 34개사, 독립성기준은 23개사로 나타남

○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규모기준 5개사, 상한기준 28개사, 독립성기준 16개사로 나타남

○ 음식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규모기준 8개사, 상한기준 6개사, 독립성기준 4개사로 나타남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규모기준 8개사, 독립성기준 3개사로 나타남

[그림 1] 서비스 분야(G47, I56, S95) 중견기업 현황



□ 중견기업의 범위는 이제 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에 이르는 기업까지 광범위함

○ 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기업부터 대기업 수준에 이르는 기업까지 광범위함

○ 매출액 분포로 살펴보면, 500억 미만 기업부터 1조 이상 기업까지 광범위하지만, 1천억 미만 기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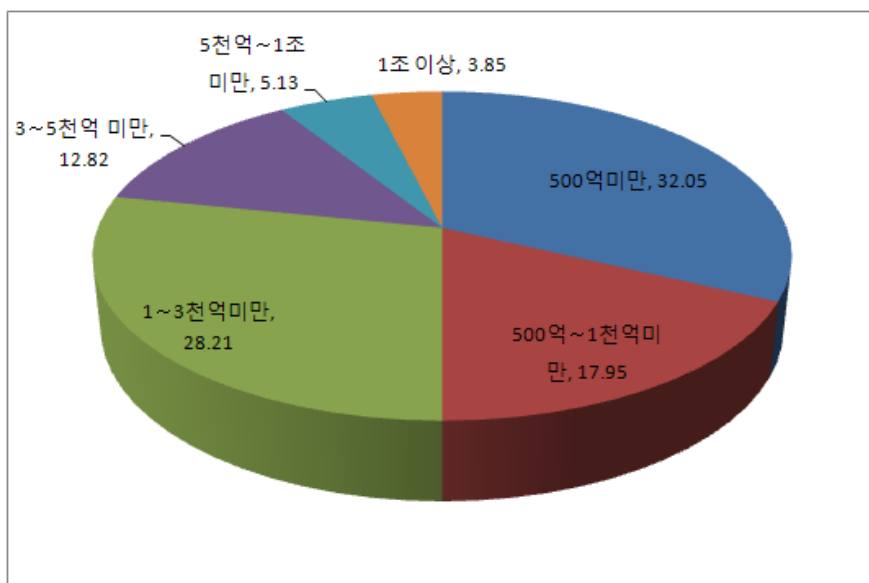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0억 미만 25개사로 3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억에서 1천억 미만이 14개사 17.95%, 1천억에서 3천억 미만이 22개사 28.21%, 3천억에서 5천억 미만이 10개사 12.82%, 5천억에서 1조원 미만이 4개사 5.13%, 1조원 이상은 3개사 3.85%로 나타남

[표 4] 서비스 분야(G47, I56, S95) 중견기업 매출액 규모별 분포

	500억 미만	500억~1천 억 미만	1~3천억 미만	3~5천억 미만	5천억~1조 미만	1조 이상
기업 수	25	14	22	10	4	3
비율	32.05	17.95	28.21	12.82	5.13	3.85

주1) 중소기업 중 매출액 1천억 이상 기업은 10개사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억 이상 1천억 미만 기업은 17개사로 파악됨

[그림 2] 서비스 분야(G47, I56, S95) 중견기업 매출액 규모별 비중



3.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

1)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검토 대상 품목

-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은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총 118개 품목임
-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종 중에서 소매업, 음식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총 118개 품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해 발표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업 70개 품목, 음식업 17개 품목,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1개 품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
- 소매업은 백화점, 대형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등 70개 품목
 - 음식점업은 한식·중식·서양식·일식·기타 외국식 음식점, 기관 구내식당업, 제과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등 17개 품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31개 품목

[표 5] 서비스 분야서(G47, I56, S95) 중소기업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

업종	산업 코드	항목명	산업 코드	항목명
소매업 (70개)	47111	백화점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122	체인화 편의점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211	곡물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213	수산물 소매업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업종	산업 코드	항목명	산업 코드	항목명
소매업 (70개)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47222	담배 소매업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411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412	한복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415	내의 소매업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47420	신발 소매업	47861	중고가구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4786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911	전자상거래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47520	가구 소매업	47991	자동판매기 운영업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993	방문판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999	그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음식업 (17개)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12	중식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13	일식 음식점업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6199	그외 기타 음식점업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업종	산업 코드	항목명	산업 코드	항목명
음식업 (17개)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219	기타 주점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56191	제과점업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31개)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96119	기타 미용업
	95119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 수리업	96121	육탕업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96122	마사지업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96129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95211	자동차 종합수리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95212	자동차 전문수리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96991	예식장업
	95391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5392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6993	개인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53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6994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96111	이용업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112	두발미용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 은 개인 서비스업
	96113	피부미용업		

주1) 출처: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2012. 7. 18. 보도자료

2)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점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의 기준이 애매모호

-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돼 피해 증가
 - 제도 논의 당시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에서는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에서는 대기업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
 - 실제로 2011년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선정시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었음²⁾

□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도 피해를 입게 될 것

- 특히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한 기업들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사례 1] S사

- 지역밀착형 슈퍼체인으로서 종합소매를 목적으로 1981년 설립되었으며, 생필품, 식품, 의류 등의 도소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
- 2011년 결산 기준 자산 3,632억, 자본 1,540억원, 매출액 1조 677억원, 임직원 수가 2,673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업종 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 슈퍼마켓이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2) 2011년 제조업 분야 적합업종 품목 지정으로 인해 중견기업 101개사, 우량중소기업 36개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조사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2011. 12. 22

[사례 2] A사

- 1998년 11월에 설립되어, 도서출판 유통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2011년 결산 기준 자산 290억, 자본 117억원, 매출액 1,560억원, 임직원 수가 230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 중견기업 판정기준인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200 and 매출액 200억 이상)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 전자상거래업이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사례 3] C사

- 프리미엄 햄버거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여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43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전국에 53개의 가맹점을 관리
- 2011년 결산 기준 자산 337억, 자본 145억원, 매출액 509억원, 임직원 수가 351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 중견기업 판정기준인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200 and 매출액 200억 이상)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 기타 외국식 음식업이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사례 4] U사

- 전기통신공사업,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2005년 설립
- 2011년 결산 기준 자산 307억, 자본 54억원, 매출액 366억원, 임직원 수가 179명에 이르는 기업으로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
- 중견기업 판정기준인 규모기준(상시 근로자수 100 and 매출액 100억 이상)에 의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
- 통신장비수리업이 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우선 검토 대상이 됨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것

○ 중견기업의 범위는 대기업에 근접한 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이제 갓 성

장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

-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으로 전체 비중의 85.9%를 차지하고 있음
- 매출액 규모별 중견기업 현황은 1천억원 미만이 605개사(46.9%), 1천억원에서 3천억원 미만 351개사(27.2%),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 154개사(11.9%), 5천억원에서 1조 미만 104개사(8.1%), 1조원 이상이 77개사(6%)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1천억 미만은 493개사, 1천억원에서 3천억원 미만 149개사, 3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 52개사, 5천억원에서 1조 미만 37개사, 1조원 이상이 26개사로 나타남

[표 5]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2010년 말 기준)

(단위: 개, %)

	1천억 미만	1천억- 3천억 미만	3천억- 5천억 미만	5천억- 1조 미만	1조 이상	총계
기업 수	605 (46.9)	351 (27.2)	154 (11.9)	104 (8.1)	77 (6.0)	1,291 (100)
제조업	112	202	102	67	51	534
비제조업	493	149	52	37	26	757

주1) 출처: 지식경제부, 『실물경제동향』, 2012. 05 제2호

- 상당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음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규제대상에 포함
- 소매, 음식,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견기업의 매출액 규모별로 보면, 2012년 현재 500억 미만이 25개사이며,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이 14개사, 1,000억 이상이 39개사에 이르고 있음
- 이 분야 중견기업 78개사 중 39개사 약 50%가 매출액 1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나타남

- 반면, 동종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억에서 1천억 미만이 17개 사이며, 1,000억 이상도 10개사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작은 중견기업도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규제를 받고,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는 문제가 발생

[표 6] 서비스 분야(G47, I56, S95) 매출액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수

	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500억 미만	500억~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중소기업	73	56	48	17	10
중견기업	3	10	12	14	39

주1) 기업 수는 한국기업데이터 DB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임(사업년도 2011년 결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기준)

- 일부 중소기업만 이익을 얻고, 중견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게 되는 동반시장의 역설이 발생

- 서비스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식자재 수급, 부품조달 등 다양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을 이양하거나 진입자제·확장자제 등 사업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과 거래를 축소할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

-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중견기업 성장억제정책

-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

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 이처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해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중견기업의 수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은 규제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우량 중소기업 또한 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지 않고 성장을 회피할 것

-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중소기업만 늘어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어렵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

○ 구직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더 좋은 일자리를 선호하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중견기업 보다는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함

○ 적합업종 지정 품목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사업을 확장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해야 함

○ 확장자제의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어려우며, 사업축소나 철수의 경우 일자리가 감소할 것

○ 물론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일자리는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의 급여수준이나 복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덜 매력적인 일자리

□ 소비자 후생 감소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

○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것

-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은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경쟁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은 악화될 것

- 중소기업만이 경쟁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자본의 한계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우며, 그로인해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서비스 향상 등의 노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후생은 악화될 것

□ 외국기업에 의해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이 증가함

○ 적합업종 지정될 경우 해당 품목에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이양해야 함

○ 반면, 외국기업은 통상 분쟁 가능성 때문에 적합업종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

○ 또 국가간 FTA 확대 등 세계경제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은 제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적합업종 시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외국기업간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에 밀려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며, 적합업종 시장을 외국기업에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후 사업제한을 받지 않은 해외기업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한 사례가 있음³⁾

3) 시장규모 약 3,400억 경질탄산음료는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된 후오미아코리아, 한국수드케미 등 외국계 기업이 시장규모의 약 40%를 점유했음. 전익주·공승현·김영수,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II)", FKI, 중소기업적합업종시리즈, 2011. 8. 22

4. 결론 및 시사점

- ☐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중견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음
- ☐ 업종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제 막 성장한 기업들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됨
- ☐ 모든 중견기업을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중견기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중소기업만 늘어날 수 있음
- ☐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은 다양하며,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부터 대기업에 가까운 기업도 있음
- ☐ 상당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음도 불구하고 적합업종 규제를 받고, 일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보다 매출 규모가 더 크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문제가 발생
- ☐ 일부 중소기업만 이익을 얻고, 중견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피해를 입게 될 것
- ☐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예정인 우량 중소기업들은 기업이 성장할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고 하지 않을 것
-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견기업 성장억제정책
- ☐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중견기업은 확장자제, 진입자제, 사업축소 등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되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중견기업은 육성되지 않을 것

- 기업간 경쟁제한으로 인해 기술개발, 품질향상, 서비스 향상하려는 인센티브를 약화시켜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기업경쟁력 저하로 인해 외국 기업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 증가
-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해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확장자제,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
- 적합업종 지정은 사업 확장자제, 진입규제, 사업이양, 사업 축소 등의 권고가 뒤따르는데, 이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억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어렵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
- 이 외에도 적합업종 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고, 국내시장은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
- 이렇듯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기업의 지속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할 것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함
- 그러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제도의 근거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개정해야 함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전자정보시스템(dart.fss.or.kr)

동반성장위원회(www.winwingrowth.or.kr)

한국기업데이터(www.cretop.com)

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중앙회,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 2012. 5. 23

동반성장위원회,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 2012. 7. 4

전익주·공승현·김영수, “주요 품목의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당성 분석(Ⅱ)”, FKI, 중소기업적합업종시리즈, 2011. 8. 22

지식경제부, 『실물경제동향』, 2012. 05 제2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2011. 12. 21